

# “26일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 요구”

### 민주 박용진 의원, 비대위 겨냥 “민주당답지 않아” ‘부결’ 당헌 개정안 일부 수정 중앙위 재의결 관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5일 비상대책위원회가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중앙위 재의결을 시도하는 것과 관련,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중앙위 소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비대위의 중앙위 재소집 발표는 민주당답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당규 상 중앙위원회 소집에는 5일이 필요함에도 내일 모레 또다시 속의와 토론이 불가능한 온라인 중앙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렇다면 통상의 당규를 뛰어넘을 정도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아직 당무위도 채 열리지 않았다”며 “당무위가 거수기도 아닌데 당무위 의결도 없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중앙위원회를 다시 열겠다고 공표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신을 비롯한 비명계의 전날 중앙위 연기 요구를 지도부가 일축한 것을 거론하며 “그런 안 되고 지금 은 되는 이유가 무엇이나”며 “지금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무엇인지 밝히지 않은 채 다시 중앙위를 열겠다고



한다면, 중앙위 투표를 연기하지는 요청을 거부한 이유도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비대위가 권리당원 전원투표 항목을 뺀 수정안을 재상정하는 데 대해서도 “제6차 중앙위원회의 당헌 개정안은 전체가 통으로 부결된 사안”이라며 “따라서 우리들은 이번 안전 재상정의 이유와 기준도 질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꼭 중앙위원회를 다시 소집해야한다면, 민주당의 당규 상 절차를 지켜 안전에 대한 의견 찬반 표시만 가능한 온라인 중앙위원회가 아니라 질문과 토론이 가능한 오프

라인 중앙위원회를 소집하길 정식으로 요청한다”며 “당헌당규를 지키고 절차를 지키자 직접민주주의 참여 확장 제도적 정비를 위해 조금만 더 시간을 투자하자”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뺀 당헌 개정 수정안이 25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전했다.

수정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 ‘국시 자동 직무정지’ 조항에서 예외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26일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된다.

/뉴스1



전북도 홍보체험관에서 한지등 만들기 행사에 참여하는 상하이 어린이들. (사진=전북도 중국사무소 제공)

## 상하이서 선보이는 ‘전북 문화’

### 도 중국사무소, 한·중 수교 30주년 맞아 전북 홍보·문화 체험관 운영... 지자체 유일

전북도중국사무소(이하 중국사무소, 소장 정순택)는 지난 24일부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 한국주간 행사에서 전북 홍보·문화 체험관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 지자체로는 전라북도가 유일하게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전라북도 홍보·문화체험 행사는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의 관심과 지원으로 전라북도의 관광자원과 2023 전북국제마스터스대회 등 다양한 분야의 홍보와 체험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중국사무소는 한국과 전라북도의 문화 홍보를 위해 전주 한지로 한지등(燈) 만들기, 전통 한복 입기, 전라강령 선화당 배경으로 사진찍기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마련하여 상하이시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상하이대한민국총영사관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한중수교 30주

년을 맞아 수교일인 지난 24일부터 한중 미술작가전을 비롯한 문화교류와 다양한 체험행사로 구성됐다.

상하이 바오롱 미술관과 한인타운 일대에서 진행된 개막식에서는 한중 전통악기 협주, 전통무용 콜라보 등이 진행되었고, 바오롱 미술관에서는 민경찬 화백 등 한국과 중국의 유명 미술작가들의 작품이 행사 기간 전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 한국 측에서는 전라북도중국사무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G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관광공사상하이지사 등이 참석했다.

중국사무소는 한중수교 30주년 축하와 더불어, 코로나19 펜데믹과 세계적 경제위기로 어려운 시기에 지만 양국 간 협력과 상생의 관계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 민선8기 전북 시·군의회의회장협 ‘첫 출발’ | “도민 복리 증진 힘 모을 것” 다짐

### 협의회장에 이기동 전주시의장 첫 임시총회서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 유치’ 결의

민선 8기 전북지역 시·군의회 협의체인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5일 첫 회의를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전주시의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을 민선8기 제1회 임시회장으로 추대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 공동 문제와 지방자치 발전 관심사 협의, 교류 협력 등을 위해 지난 1991년 5월 출범했다. 통상 협의회장은 규모가 가장 큰 전주시의회 의장이 맡고 있으며, 전임 회장은 강동화 전 전주시의회 의장(현 전북도의원)이었다.

협의회는 또 상임부회장에 최중오 익산시의회 의장과 김광수 부안군의회 의장을 감사에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을 각각 선임했다. 이번에 추대된 임원들은 앞으로 2년 여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기동 선임 협의회장은 “전북 시·



전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25일 첫 임시총회를 연 가운데 도내 시군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장에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추대됐다.

군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가 지역정치의 중심에서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발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시총회에서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안에서 “고창 갯벌이

지역적 특성상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의 중앙에 있고 지역 균형발전과 갯벌의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고창에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창군과 고창군의회는 탐사르스지 도시 지정 등 갯벌의 생태학적 가치를

높이기 수년간 노력해 왔으며, 갯벌 보전본부 유치를 위해 부지를 확보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의지를 피력해왔다.

이날 채택한 결의안은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에 각각 전달할 예정이다.

/김재훈기자·고창=김영식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수칙 준수해주세요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maeil.com

△△ ☀️ ☁️

그리고 반딧불이

제26회 무주반딧불축제

2022. 8. 27.토 - 9. 4.일

muju

축제 문의 063-324-2440  
http://tour.muju.go.kr